

2023 September

# Hana

# Market Monthly

연구위원 서정훈

Tel. 02-729-0195

[seojh@hanafn.com](mailto:seojh@hanafn.com)

연구원 이유정

Tel. 02-729-0190

[yjlee.r@hanafn.com](mailto:yjlee.r@hanafn.com)



## 목차

---

I. 금리	3
I. 달러/원 환율	5
III. 엔/원 환율	7
IV. 유로/원 환율	7

---

# 금리

## 8월 동향

미국 신용등급 강등 여파와 미 장기채 수급 불안 우려 등으로 상승 추세 보인 후, 한은 금통위 금리 동결 결정, 중국 부동산 불안 우려 속 시장 예상에 부합한 잭슨홀 미팅 결과 등을 반영하며 하락 전환 마감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외국인 국채선물 투자 자금 유출 등으로 상승한 국고채금리는 이어진 고용지표 둔화, 중국 부동산 불안 경계감 등으로 하락 전환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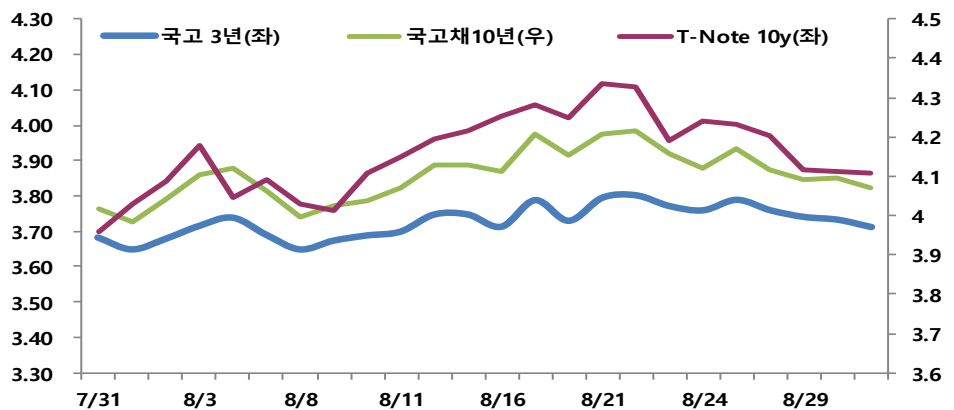
7월 미 PPI 상승 및 FOMC 의사록의 매파양상 반영 속 급등세 시현

한은 금통위 5연속 금리 동결 결정과 잭슨홀 미팅의 시장 기대에 부합한 측면 등의 반영 속에 미 국채 금리 하락 영향 반영하며 큰 폭 하락 시현

- 월초, 미 신용등급 강등과 국채입찰 규모 증가의 수급 영향에 의한 미국채 금리 상승 흐름 반영 속 상승 출발 후, 7월 고용지표 시장 예상치 하회, 중국 부동산 불안 경계감 등으로 하락
  - 월 초, 미국 신용등급 강등 소식 이후 외국인 국채선물 매도 강화된 가운데 재무부 국채 입찰 규모 증가 소식에 따른 수급 악화 우려 속 미 국채 금리 상승 추세를 추종하며 국고채 금리 상승 출발
  - 하지만 이후 발표된 미 7월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가운데 중국 부동산 불안 경계감 및 7월 미 CPI의 시장 예상 하회 등을 반영하며 하락 전환
- 중반, PPI 상승 전환에 대해 인플레이션 우려 재차 반영과 중국 경제지표 둔화, 부동산 불안에 따른 영향 상충으로 등락 시현 후, 7월 연준 의사록의 매파 양상 반영하며 급등세 전환
  - 중반 들어, 직전 CPI 시장 예상 하회 결과와 달리 7월 PPI의 상승 전환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높이며 추가 긴축 가능성 반영 등으로 상승 압력으로 작용. 반면, 중국의 경제지표 둔화와 부동산 불안이 안전자산 선호에 영향을 미치며 상기 요인과 상충되면서 국고채 금리는 일정 수준에서 등락
  - 이후, 7월 연준 의사록의 인플레이션 위험 주목 측면의 매파 성향 인식으로 국고채금리 급등세 시현
- 후반, 중국 부동산 불안 등 위험회피 요인 등이 안전자산 선호를 부각한 가운데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 의장의 기존 매파 성향 지속에도 시장 기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측면 등의 부각으로 하락 전환 마감
  - 후반, 중국 부동산 업체 형태의 파산 보호 신청 소식 등에 의한 위험회피 요인 부각에도 잭슨홀 미팅에 대한 경계감 등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
  - 이어 한은 금통위의 5연속 금리 동결 결정 반영 속 하락 전환 후, 잭슨홀 미팅 결과가 다소 매파적이었지만 시장 기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안도감 등의 작용 속 미 국채금리 하락에 연동하며 큰 폭 하락 시현하며 마감

8월 평균  
국고채(3년): 3.73%  
T-Note(10년): 4.16%

주요 시장금리 추이



자료: 하나은행. 단위 %

## 9 월 전망

최근 미 고용, 소비심리 등의 냉각 가능성 등을 고려 9월 연준 금리 동결 가능성 높을 전망 속 중국 부동산 우려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의 위험회피 요인 반영 등으로 소폭 금리 하방 압력 중대 예상

평균	1Q23	2Q23	3Q23	4Q23
국고채(3y, %)	3.46	3.38	3.60 <sup>(F)</sup>	3.40 <sup>(F)</sup>

제약적 긴축에 따른 미 고용관련 지표의 냉각 가능성 등이 9월 FOMC 금리 동결 결정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

- 최근 미 고용관련 지표가 시장 예상 하회한 가운데 고용시장 둔화 기대가 커진 점과 2분기 성장률도 약간 약화되며 9월 금리동결 기대가 커진 측면이 국내외 금리 하락 요인으로 예상
  - 전월 미 주요 물가지표가 연속 둔화를 멈추고 저저효과 등을 반영 추가 상승 가능성 열려있는 점과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의장의 기존 매파 성향을 고려 시 남은 추가 인상 가능성 배제하기 어려울 듯
  - 반면, 최근 미 고용관련 지표 냉각 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제약적 긴축에 의한 점진적 경기 냉각 가시화 초기단계 진입 인식 가능성 등은 9월 금리동결 우위 강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외 금리 하락 요인으로 판단

제약적 미 긴축 수준에 따라 연준 의장도 미국 경기가 멀지않은 시기 냉각 가능성을 평가하는 상황에서 유로존과 특히, 중국경제 불확실성은 위험회피 심리 강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미 경제의 상대적 견고에도 점차 냉각될 것으로 연준도 기대하는 가운데 유로존은 보다 빠르게 침체에 근접하는 국면이고 특히, 국내 수출과 밀접한 중국 경기가 내수부진과 함께 부동산 부실화가 확대된 점 등이 안전자산 선호를 통해 금리 하방 압력을 키울 요인으로 판단
  - 미국 경제가 주요 경제권역 대비 상대적 견조함 유지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최근 고용과 소비심리 지표들이 약화하는 가운데 제약적 긴축 수준에 따라 멀지 않은 시간 경기가 식을 것으로 연준도 인식하는 상황 등에 따른 추가 긴축 가능성이 크지 않을 요인 등이 금리 상단 제한할 것으로 예상
  - 여기에 중국 경제의 최근 내수부진과 함께 부동산 부실화 우려가 확대된 상황에서 극복을 위한 통화 완화 등에도 회복에 대한 시장의 부정적 인식 등이 위험회피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국내외 금리 하방 압력 요인으로 판단

9월 국고채(3Y) 금리는 3.60%~3.75% 예상

- 한은은 국내 물가지표 재차 반등 가능성 열어놓고 있으나, 최근 전산업생산 하락 등 경기 회복 모멘텀이 추가 약화하는 가운데 중국 경제 불안 등에 따른 수출 경제 약화 가능성으로 연내 현 금리 수준 유지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른 점 등이 국고채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 한은은 국내 물가지표가 하반기로 갈수록 재상승에 대한 가능성과 연준의 추가 긴축 우려 등으로 최종 금리 상단을 3.75%까지 열어놓고 있으나, 최근 수출 감소세 지속 및 전산업생산 하락 등 경기 회복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약화하는 국면
  - 여기에 중국 경제 회복력이 부동산 디폴트 우려 등으로 크게 약화한 점이 특히 수출 경기를 제약하며 국내 경기에 부정적 요인 작용 고려 시 금리 상승 방향성은 크게 제한될 것으로 예상

### 상승 요인 vs. 하락 요인

상승요인	하락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저효과 감안한 2연속 헤드라인 CPI 상승 우려</li> <li>· 한은 금리 동결 기조 우위에도 여전히 최종 수준 3.75% 유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월 FOMC 금리 동결 가능성</li> <li>· 미 고용 및 소비심리 지표들의 냉각 추이</li> <li>· 중국 부동산 불확실성 등 경기 둔화 우려 집중</li> </ul>

자료: 하나은행

# 달러/원 환율

## 8 월 동향

**미 인플레이션 압력 지속 우려와 중국 경제 불확실성 고조에 글로벌 달러 강세 지속되며 환율 상승 흐름 속 1,340원대 재진입했으나 미 고용시장 둔화 조짐에 따른 연준 금리동결 기대감 등이 상단을 제한**

미국 경제 견조할 가능성에 연준의 추가 긴축 경계감 확대되고, 피치의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과 중국 경기 우려 등에 글로벌 위험회피 강화되며 환율은 1,310원대로 상승

- 월초, 견조한 미 경제지표로 인해 연준 긴축 장기화 전망 강화되며 환율은 상승 출발 후, 미 고용 둔화 조짐에도 물가 경계감과 중국 경기 우려 속 위험회피 심리 등으로 1,310원대 상승
  - 월초, 미 경제지표 호조에 연준의 매파 기조 지속될 것이란 전망 강화되며 달러 강세 이어지고, 중국 경기침체 우려와 피치의 미 신용등급 강등 소식으로 안전자산 선호심리 유입되며 환율은 상승 출발
  - 미 7월 비농업부문 고용 둔화에 따른 긴축 중단 기대감에 상승 흐름 제한되었으나, 미 물가지표 발표 전 경계감과 첨단산업 투자 제재 등 미·중갈등으로 위험회피 강화되며 환율은 재차 상승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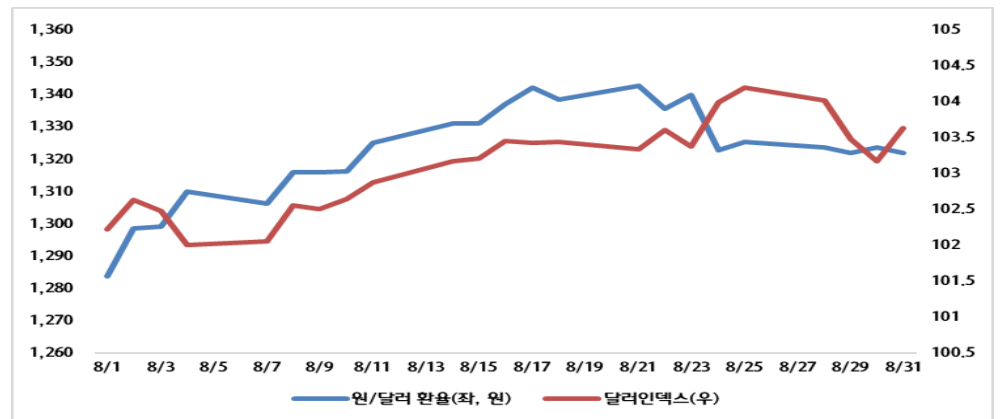
미국 7월 CPI 및 PPI 반등으로 물가상승 압력 여전히 강한 모습 확인된 가운데, 중국 부동산 리스크 확산 조짐이 위험자산 회피심리 자극한 영향으로 환율은 상승세 속 1,340원대 진입

- 월 중반, 미 물가지표가 전월 대비 반등하며 추가 긴축 가능성 부각되고 중국의 경기 부양 조치에도 침체 우려 이어진 데 따른 위안화 약세에 연동되며 환율은 상승 흐름 지속
  - 중반, 미 7월 CPI와 PPI 상승폭 확대된 측면이 인플레이션 압력 지속에 대한 우려감 자극하고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실망감 속 위안화 약세에 동조화된 영향 반영하며 환율은 상승 흐름 지속
  - 견조한 미 소비 확인되며 글로벌 달러 강세 흐름 지속되는 가운데 외환당국 개입 경계심리에도 중국 부동산 붕괴 위험회피 심리 확산 등에 원화 약세 가중되며 환율은 1,340원대 재진입 후 연고점을 기록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 속 리스크온 분위기에 환율 하락. 이어 예상에 부합한 파월 의장 연설과 미 고용 둔화 조짐에도 중국 경제 우려와 위안화 약세 등에 1,320원대 초반 마감

- 후반, 반도체 업황 반등 가능성에 글로벌 위험 선호 심리 유입되며 환율 하락. 이어 파월 연준 의장 잭슨홀 발언 소화 후 고용시장 둔화 시그널에도 중국 경기둔화 우려 속 1,320원대 마감
  - 후반, 한은 금통위 금리동결에도 미국 반도체기업 실적 호조에 위험 선호 심리 회복되며 환율은 1,320원대로 금락 시현했으나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연설 앞두고 경계감 강화된 측면이 하단을 지지
  - 예상에 부합한 파월 의장 연설과 미 고용 관련 데이터 둔화로 고용시장 둔화 가능성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기침체 리스크와 위안화 약세 영향 등을 반영하며 환율은 1,320원대 초반에서 마감

### 달러/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추이



자료: 하나은행

## 9 월 전망

미국 물가 상승 전환 지속 예상에도 경기 지표 고려 시 금리 동결 탄력 받는 것으로 판단됨에도, 중국 경기 둔화 우려와 이에 따른 국내 경제 활력 약화 속 통화적 위험회피 가능성이 상충하며 1,300원 등락 예상

평균	1Q23	2Q23	3Q23	4Q23
달러/원 환율(원)	1,280	1,310	1,290 <sup>(F)</sup>	1,270 <sup>(F)</sup>

9월 FOMC 변동 확률이 큰 상황으로 인식되지만 최근 미 고용, 소비 지표 약화와 현 금리가 경제에 제약적 수준임을 고려할 때, 금리 동결 결정이 우세할 것으로 판단

- 최근 연준 주요 행사에서 파월의장의 기존 매파성향 고수에도 시장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고용관련 지표들이 점진적으로 식는 측면 등을 고려할 때, 9월 FOMC 금리 동결 선반영 등이 주요하게 원화 소폭 강세를 지지할 요인으로 예상
  - 미국의 주요 물가 지표들이 전년대비 기저 효과를 감안할 때,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여전히 기존 정책을 고수하는 매파적 연준 기조 등이 강달러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그럼에도 최근 미 고용관련 지표, 소비 지표들 강세가 완화되는 국면 전환과 연준의 현 금리 수준이 경제에 제약적 수준임을 인식하는 측면을 고려할 때 9월 FOMC는 동결이 우세할 것으로 판단됨. 시장이 이러한 측면을 선반영하는 과정에서 원화는 소폭 강세 흐름 속에 1,300원에 근접할 전망

중국의 최근 부동산 리스크 우려 속 경기 둔화 가능성 커지는 가운데 위안화 약세 흐름이 강화되는 점 등이 원화 강세 흐름을 크게 제한할 요인으로 체상

- 중국 부동산 리스크의 경제부문 전이를 통한 둔화 우려가 위험회피 심리를 다소 지속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이에 대한 방어를 위해 통화 완화 등이 위안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 등도 원화의 약세 지지 요인으로 예상
  - 중국 관련 부동산 리스크의 경제 둔화로의 전이 가능성 등에 의한 위험회피 심리가 달러 강세를 다소 지지할 요인으로 판단
  - 여기에 경기 둔화 방어를 위한 중국 당국의 통화완화 정책이 위안화 약세를 견인하는 측면이 원화의 일부 동조화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측면도 원화의 약세 모멘텀 요인으로 예상
- 대외 요인이 반영된 국내 수출 경제 불안 확대 등이 원화 강세 모멘텀 제한할 요인. 여기에 한은이 최종 금리 수준은 3.75%를 유지함에도 추가 긴축에 대해서는 국내 경제 상황 고려 상당히 제약적이란 점에서 연내 동결 가능성이 우위인 측면도 원화 약세에 영향을 미칠 전망
  - 주요 경제권역의 경기 모멘텀 약화 속에 특히,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 수출 감소세 확대 등 달러 수급에 부정적 영향이 지속되는 점이 원화 강세를 제한할 요인으로 보임
  - 여기에 한은이 최종 금리를 3.75%로 유지하고 있으나, 상기 충격 등에 따른 국내 경제 둔화에 대한 통화정책 고려 시 연내 금리 동결이 예상됨에 따라 원화 강세 전환에 다소 시차가 걸릴 것으로 예상

9월 달러/원 환율  
1,285원 ~1,310원 예상

### 상승 요인 vs. 하락 요인

상승요인	하락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저효과 감안한 물가 2회 재상승 가능성</li> <li>· 중국, 유로존 등 주요 경제권 둔화 우려 점증</li> <li>· 국내 수출 감소세 점증 속 부정적 달러 수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준의 9월 금리 동결 우위 가능성</li> <li>· 시장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잭슨홀 미팅 결과</li> </ul>

자료: 하나은행

# 이중통화

## 엔/원 전망

**BOI 완화정책 고수 의지가 엔화 약세 견인하는 가운데 미 고용 둔화와 이에 따른 금리인상 중단 기대에 약세 흐름 다소 제한될 전망. 엔/원 환율은 연준 금리동결 영향에 양 통화 모두 상대적 강세 보이며 900원대 흐름 보일 전망**

8월 달러/엔 평균환율 : 144.9  
8월 엔/원 평균환율 : 912.4

9월 엔/원 예상범위 : 895-915원

- (엔화 동향) 피치의 미 신용등급 강등에 안전자산 수요 증가하며 엔화 강세 나타났으나 미 비농업 고용 둔화와 추가 긴축 우려 완화로 위험 선호 심리 회복되며 약세 전환. 중반, 견조한 미 물가지표와 7월 FOMC 의사록 내 연준의 인플레이 지속 경계감 확인 후 달러 대비 약세 지속. 후반, 중국 부동산 디폴트 이슈로 리스크오프 강화되며 일시적 강세 나타났으나 BOI 관계자들이 물가 목표 달성 위해 현 통화완화 기조 유지할 것을 재차 강조하면서 약세 마감
- (엔/원 전망) BOI 관계자들이 비둘기적 발언 이어가면서 현 금융완화 정책의 전환 가능성 배제하는 측면이 엔화의 추세적 약세 흐름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다만, 미 고용시장 둔화 가능성에 9월 FOMC 금리동결 기대감 높아진 측면과 중국 부동산 디폴트 이슈 및 경기 침체 리스크에 안전자산 수요 강화된 점에서 엔화 약세 다소 제한될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미 물가 둔화세 약화되며 인플레이션 불확실성 지속되고 연착륙 가능성 높아진 점 등을 고려 시 추가 긴축 경계감 유지되는 가운데 엔화 약세 흐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연준 긴축 스탠스의 주요 동인인 견조한 고용시장이 점진적으로 둔화됨에 따라 금리인상 사이클 중단 전망 강화되고 중국 경기 우려 지속되는 측면이 안전자산 선호 자극하며 엔화 약세는 다소 제한될 전망
- 그러나 여전히 목표 대비 높은 미 물가수준에 대응하기 위한 연준의 매파 기조 지속될 가능성과 이와 대조되는 BOI의 완화적 통화정책 고수 의지가 엔화 약세를 견인하며 엔/원 환율은 895-915 수준 예상

## 유로/원 전망

**유로존 경기 지표 추세적 둔화 지속하는 가운데 경제 영향이 큰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회복력 약화를 통해 유로 약세 견인할 요인. 하지만, 추가 1회 ECB 금리 인상 가능성 상존 등이 단기 유로 강세 모멘텀에 영향 미칠 전망**

8월 유로/달러 평균환율 : 1.0907  
8월 유로/원 평균환율 : 1,441.7

9월 유로/원 예상범위 : 1,420~1,445원

- (유로화 동향) 유로존 제조업 위축세 속 경기침체 우려에 유로화 약세로 출발했으나, 미 7월 고용지표 부진에 따른 연준 금리인상 중단 기대감으로 리스크온 회복되며 강세 전환. 중반, 미 물가 상승 및 경제지표 호조로 연준의 고금리 장기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에 유로화의 추세적인 약세 흐름 지속. 후반, 중국 경기 둔화 우려 확대로 위험회피 분위기 확산된 가운데 연준의 금리동결 가능성에 일시적 강세 보였으나 ECB 위원의 비둘기적 발언에 약세 마감
- 8월 후반 미 잭슨홀 미팅 후 달러 조정 속 유로 강세 지지된 양상이었으나, 최근 유로존 소비자 및 기업 신뢰지수 하락, 중국 요인 등으로 경제 하방 압력은 유지되는 상황. 그럼에도 물가지표의 소폭 하락에도 여전히 상대적 높은 수준임을 볼 때, ECB 추가 긴축 가능성이 1회 정도 유효할 전망. 이에 통화 정책상 미국과의 차별화 요인 반영에 따라 소폭 강세 흐름이 예상
- 유로존 경제 지표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요인 등으로 추가 약세 가능성이 높은 상황. 다만,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등 연준과 차별화된 통화정책 요인 등의 반영으로 단기 강세 흐름 예상
- 유로/원은 7월 FOMC 금리 동결 전망에 따른 원화의 상대적 강세 반영 속 1,410원대 진입 예상



#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일정(2023년 9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b>[9월] 주요이슈</b> 아세안(ASEAN) 정상회의(9/4~7) RBA 통화정책회의(9/5) 연준 베이지북 공개(9/7) G20 정상회담(9/9~10) UN 총회(9/12~30) 한국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9/14) ECB 통화정책회의(경제전망)(9/14) 미국 FOMC(경제전망)(9/19~20) BOE 통화정책회의(9/21) BOJ 통화정책회의(9/21~22)	*주: 1.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P]-속보지, [F]-확정지, [A]-잠정지, ( )안은 이전지				<b>1 미국고용보고서</b> 만 8월 수출/입(YoY -16.4%/ -25.4%) 미 8월 비농업부분고용자수 변동(187K) 실업률(3.5%), 경제활동 참가율(62.6%) 시간당 평균 임금(MoM +0.4%) ISM 제조업지수, 고용, 신규주문 중 8월 Caixin 제조업 PMI(49.2) 유 8월 제조업 PMI[F] 일 8월 지분 은행 제조업 PMI[F] 스 8월 CPI(106.17)	<b>2</b>
<b>3</b> 일 7월 지분 은행 종합, 서비스 PMI	<b>4 아세안정상회의(~7)</b> [휴장] 미국(노동절) 유 7월 PPI(MoM -0.4%, YoY -3.4%) 8월 종합, 서비스업 PMI[F] 일 8월 지분 은행 서비스, 종합 PMI[F]	<b>5 RBA 통화정책회의</b> RBA 통화정책회의 :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 4.10%로 2연속 동결 만 2Q GDP[P](QoQ +0.9%, YoY +0.6%) 8월 CPI(MoM +0.1%, +2.3%) CPI 근원(YoY +3.3%) 미 7월 제조업수주(MoM +2.3%) 내구재주문[F](MoM +4.7%) 중 8월 Caixin 종합, 서비스업 PMI(51.9, 54.1)	<b>6 지준일</b> 미 8월 S&P 글로벌 서비스, 종합 PMI ISM 서비스 지수(52.7) ISM 고용, 신규주문(50.7, 55) 유 7월 소매판매(MoM -0.3%, YoY -1.4%) 캐 9월 기준금리(5%)	<b>7 Beige Book</b> 연준베이지북공개 미 2Q 비농업부분 노동생산성[F](QoQ +3.7%) 중 8월 수출/입(YoY -14.5%/ -12.4%) 유 2Q GDP[F](QoQ +0.3%, YoY +0.6%) 일 7월 선행지수, 동행지수[P] 독 7월 산업생산(96.4)	<b>8</b> 미 7월 도매무역 판매[F](MoM -0.7%) 일 2Q GDP[F](QoQ +1.5%, YoY +6.0%) 7월 실질 임금 총액(YoY -1.6%) 8월 경기관찰조사 연행, 전망(54.4, 54.1) 독 8월 소비자물가(116.8) 캐 8월 실업률(5.5%)	<b>9 G20정상회담(~10)</b> 중 8월 소비자물가증가율 YoY(-0.3%) 8월 생산자물가(95.6)
<b>10</b> 일 9월 1~10월 수출/입 (YoY -15.3%/ -30.5%) 일 8월 통화량 M2(YoY +2.4%) 공작기계 수출	<b>11</b> 만 9월 1~10월 수출/입 (YoY -15.3%/ -30.5%) 일 8월 통화량 M2(YoY +2.4%) 공작기계 수출	<b>12 유엔총회(~30)</b> 미 8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91.9) 호 8월 NAB 경기지수 (10)	<b>13 미국 CPI</b> 만 8월 수출물가(MoM +0.1%, YoY -12.8%) 수입물가(MoM +0.4%, YoY -13.5%) 8월 실업률(2.8%) 미 8월 CPI(MoM +0.2%, YoY +3.2%) CPI 근원(MoM +0.2%, YoY +4.7%) 실질 평균 시간당 임금(YoY +1.1%) 유 7월 산업생산(MoM +0.5%, YoY -1.2%) 일 3Q BSI 대형 전업종, 제조업(2.7, -0.4) 8월 PPI(MoM +0.1%, YoY +3.6%)	<b>14 선물옵션 동시만기일/ECB통화정책회의</b> [ECB 통화정책회의] (1)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 4.25%로 25p 인상. 내수 침체, 인플레이션으로 경기 우려 (2) ECB 총재는 지표에 따라 금리 인상 여부 결정한다고 언급. 동결 가능성 열어놓음 미 8월 소매판매(MoM +0.7%) 근원 소매판매(MoM +1.0%) PPI(MoM +0.3%, YoY +0.8%) PPI 근원(MoM +0.3%, YoY +2.4%)	<b>15</b> 만 8월 수출/입 확정지(YoY -16.4%/ -25.4%) 미 8월 수입물가(MoM +0.4%, YoY -4.4%) 수출물가(MoM +0.7%, YoY -7.9%) 항공업생산(MoM +1.0%) 9월 뉴욕주 제조업지수(-19) 미시간대 소비자신뢰, 경기연행[P] 중 8월 항공업생산(YoY +3.7%), 소매판매(YoY +2.5%), 실업률(5.3%) 유 2Q 노동비용(YoY +5.0%)	<b>16</b>
<b>17</b>	<b>18 [휴장] 일본(경로의 날)</b> 미 9월 뉴욕 연준 서비스업 경기활동 NAHB 주택시장지수(50)	<b>19 미국FOMC(~20)</b> [미국 FOMC(~20)] (1) 지난 회의에서 정책금리 5.25%~5.50%로 25bp 인상. 연준은 중립적인 스탠스 유지 (2) 9월 동결 전망 우세하나 7월 FOMC 회의록에서 추가 긴축 가능성 제기된 점 부담 미 8월 주택착공건수(MoM +3.9%) 건축여가(MoM +0.1%) 유 8월 CPI[F](YoY +5.3%), CPI 근원[F]	<b>20</b> 만 8월 PPI 유 7월 건설생산(MoM +0.5%) 일 8월 수출/입(YoY -0.3%/ -13.5%) 미 8월 기준주택매매(MoM -2.2%), 선행지수 EIA 원유재고량 9월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 전망 독 8월 생산자물가(147)	<b>21 BOE, BOJ(~22)통화정책회의</b> [BOE 통화정책회의]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 5.25%로 25bp 인상하며 14회 연속 기준금리 인상 단행/각국 통화정책 각자도생의 길 올 견고 있는 가운데 BOE 총재, 추가 긴축 여지 열어둠 [BOJ 통화정책회의(~22)] 지난 회의에서 단기금리 -0.1%로 마이너스금리 유지했으나 YCC 정책 일부 수정/완화 정책 유지하던 BOJ는 엔저에 대응해 장기 금리 상한 1%로 제시 유 9월 소비자기대지수[P]	<b>22</b> 미 9월 S&P 글로벌 제조업, 서비스업, 종합 PMI 유 9월 제조업, 서비스업, 종합 PMI[P] 일 8월 전국 CPI, 국내 CPI 근원 9월 지분 은행 제조업, 서비스, 종합 PMI[P] 뉴 8월 무역수지	<b>23</b>
<b>24</b>	<b>25</b> 미 8월 시카고 연방 국가활동 지수 9월 달러스 연준 제조업 활동	<b>26</b> [한국 금융안정회의] 한국은행에서 진행하는 정기 회의로 최근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 만 9월 소비자심리지수 미 8월 신규주택매매 9월 필라델피아 연준 비제조업 활동 컨퍼런스보드 소비자기대지수 리치몬드 연방 제조업지수 달러스 연준 서비스업 활동	<b>27</b> BOJ 7월 의사록 공개 만 10월 기업경기실사 비제조업, 제조업 미 8월 내구재 주문[P] 중 8월 산업생산 일 7월 선행지수, 동행지수[F] 호 8월 CPI YoY(4.9%)	<b>28 한국휴장(추석연휴)</b> [휴장] 한국(추석) 만 10월 기업경기실사 비제조업, 제조업 미 8월 내구재 주문[P] 중 8월 산업생산 일 7월 선행지수, 동행지수[F] 호 8월 소매판매(전월비) (0.5%)	<b>29한국휴장(추석)</b> [휴장] 한국(추석), 중국(중추절) 미 8월 개인소비지수, 실질 개인소비 PCE, PCE 근원 디플레이터 도매재고[P], 소매재고 9월 MNI 시카고 PMI 캔자스시티 제조업활동 미시간대 소비자신뢰, 경기연행[F] 중 9월 Caixin 종합, 제조업, 서비스업 PMI 유 9월 CPI, CPI 근원[P]	<b>30 추석연휴</b>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입니다. 따라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니며, 자료에 나타난 의견이나 전망치는 향후 예고없이 당행의 판단으로 수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의 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